

일본의 박물관 현황과 과제

森田 恒之*

1970년대부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일본의 박물관은 현재도 매년 새로운 박물관의 개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이 최근 수 년 사이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 년 동안의 움직임을 통해서 현저하게 보이는 것은 현립이나 대도시의 공립박물관을 다시 조직하거나 신관을 개설하는 움직임이다. 이는 생태계, 지구과학, 고생물 등을 취급하는 자연사계의 대형 박물관을 개관하거나 건설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개관한 인문과학, 자연사를 포함하는 종합박물관이 20여 년 지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수집품의 증대를 수반하여 수장공간의 부족, 전시의 개선,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결과, 역사·민족계와 자연사계로 분할되게 하였고, 그것은 각 박물관을 가지려는 방향으로 나아 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년의 경제불황은 기업의 사립박물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70년대부터 새로운 경향을 목표로 하는 미술관으로서 주목을 받았던 사이손미술관은 지난 3월 폐관되었으며, 일본회화를 수집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야마타(山種)미술관은 규모가 축소되고 이전되었으며, 간부직원을 해고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수집품의 일부를 매각하는 박물관도 있다. 은행예금이자율이 0.5%로 떨어져 사립박물관의 유지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현저하게 박물관이 증가한 지난 30년간 학예원의 수도 증가하였다. 그 결과 박물관 학예원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매력적인 직업이 되었고,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박물관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 대상영역이 넓어지면서 다채로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응책으로 문부성은 1997년 4월부터 대학에서 학예원 양성을 위한 박물관학의 이수단위를 2단위(30시간) 늘리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지만 그 개정으로 인해 일부 교원들이 부족해져서,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